

문화전당 올 10월 완공 못한다

옛 도청건물 등 평화교류원 공사 1년째 중단·재설계 리모델링 최소 15개월... 내년 9월 전면 개관도 불투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오는 10월 완공은 물론 내년 9월 전면 개관까지도 불투명한 처지에 놓였다.

〈관련기사 3면〉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은 문화전당 리모델링 대상 공간인 민주평화교류원 공사가 1년째 중단 중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나머지 신축 건물에 대한 공정률(9%·8월 현재)만을 언급, 10월 완공을 약속했다.

28일 추진단에 따르면 문화전당의 5개 원의 핵심공간인 민주평화교류원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돼 있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옛 전남도청, 전남도청 민원실, 상무관,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단은 이 공간들을 아울러 리모델링해 광주정신을 문화적으로 승화하는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갑작스런 재설계 추진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1년째 방치되고 있어 추진단의 발표와 달리 오는 10월 문화전당의 5개원(민주평화교류원·어린이문화원·예술극장·정보원·문화창조원)의 전체 완공은 물건너가게 됐다. 민주평화교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신축 건물들만 완공된다는 얘기다.

추진단은 “애초 설계안에는 민주평화교류원에 전시공간이 2곳 뿐이었으나, 모두 5개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불가피하게 재설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5월 단체들이 설계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주평화교류원 재설계는 애초 문화전당 설계자인 재미건축가 우규승씨의 설계원안과 별도로 재설계되고 있다. 그 결과물은 금명간 납품받을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전했다.

문제는 모두 6개 건물로 이뤄진 민주평화교류원의 리모델링 공사기간이다. 전문

■ 민주평화교류원 구성안

구분(옛 명칭)	공간 운영
도청 본관	전시(인권관)
도청 민원실	컨퍼런스홀
경찰청 본관	전시(평화관)
경찰청 민원실	전시(민주관)
상무관	메모리얼 홀
도청 별관	러닝센터, 기획전시 등

가들은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최소 15개월~2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추진단 관계자들은 애초 우규승씨의 설계안에 따라 예정대로 공사했을 경우에도 같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당장 민주평화교류원 공사를 시작해도 문화전당 개관(2015년 9월4일) 일정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최악의 경우 내년 9월 전면개관을 약속한 정부가 민주평화교류원을 제외한 신축 건물들만 개관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민주평화교류원 건립공사비가 재설계 실시로 당초(128억원) 보다 79억여원 증액된 것도 완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추진단은 현재 정부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기존공사 금액을 벗어난 추가지원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추진단은 내년 문화전당 개관 행사에 아시아 각국 문화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개관 기념행사 계획을 마련했으나, 자칫 부분 개관으로 문화전당 개관 효과가 반감될 우려를 낳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한 설계용역이 나오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개관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부분에서도 해당 부처와 얘기가 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국제영화제 개막...스타들의 총장로 레드카펫

8일 오후 광주 롯데시네마 총장로관에서 열린 제14회 광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영화제 홍보대사인 배우 진이한, 추소영, 유인영씨가 레드카펫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김동원 감독), 드라마 어워즈 ‘한류 스타상’(장우혁), ‘뉴스타상’(진이한·유인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25개국 94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비 지원 없으면 ‘복지 디폴트’ 선언”

(지급불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

정이다.

광주·전남 등 전국 자치단체들의 ‘복지예산’ 반란이 시작됐다. 생색은 정부에서 다 내면서 가뜰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은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며 국비 지원이 없으면 ‘복지 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건의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성명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대서명을 통해 성명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다음달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협의회 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과 사무총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시·도 공동회장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

앞서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부자 자치단체인 서울시마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광주와 전남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광주시는 올해에만 순수 시비로 298억원에 이르는 기초연금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에는 200여억원이 증가한 694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광주 5개 구청도 올해 199억원에서 내년에는 278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에 지난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연금지급액이 크게 늘어난데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는 2011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비율이 순수 시·구비 기준으로 각각 161억원과 110억원이었으나, 불과 4년만인 2015년에는 156%나 증가한다.

이 기간 광주의 노인인구는 2011년 13만 6411명에서 16만 4630명으로 2만 8219명이나 늘어난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유민 아빠’ 김영오씨 46일만에 단식 중단

“장기적인 싸움 준비”

새정치 문재인 의원도

씨는 유일하게 남은 딸 유나와 모친 등 가족을 위해, 유가족들의 요청과 국민의 염원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고 복식을 하며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민 아빠’ 김영오씨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8일 단식을 중단했다.

4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김씨는 이날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낮 12시부터 밥을 200cc로 식사를 시작했다.

김씨는 단식 40일째였던 지난 22일 건강이 악화돼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서울 동대문구 시립동부병원으로 이송돼 1주일째 입원 중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시립동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협상에 진전이 없어 언제 특별법이 타결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김

김씨는 기자회견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협상이 된 것도 아니니 몸 좀 추스르면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가 끝까지, 될 때까지(투쟁) 할 것”이라며 “먹고 힘내서 싸워야지”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19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조 단식 농성을 벌여온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이날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2014. 9. 6(토)~9.18(목)
입학문의 062)605-1114, 1027
광신대학교

‘5·18’ 상표등록한다
정신 되새기고 무분별 상품화 방지 ▶ 6면
장흥 시골벽적 문화난장
천관산 자락 문화 프로그램 다채 ▶ 18면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상생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C 200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8.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8.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with Passivacoustic soundproof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나 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